

BUDDHANARA TEMPLE

FAITH
WISDOM
ACTION

Happy 2556th Buddha's Birthday

불기 2556(201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오당안지
三界皆苦 吾黨安之

- 수행본기경 관상 보살신품 -

■ Date: May 27, 2012 at 10:30am

■ 장소: Buddhanara Temple (불국사)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Tel: (314) 993-0185, 239-9068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

Ceremonial Program

Part I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Everyone
Korean: p. 7, English: p. 6

* Program Reader: Seungho Cho

* Pianist : Jung Ah Kim

Part II

명 종 (Bell) Repeat 5x

점 등 (Light the Lantern) Heon & Sook Kim

삼귀의례 (The Three Refuges) (p.36) Everyone

반야심경, Heart Sutra Everyone

Korean: p. 7, English: p. 6

헌 향 및 헌향게송 (Offering of Incense) Simgong Steve Arnett

헌 화 및 헌화게송 (Offering of Flowers) Banya Greg Kilper

관 불 의 식 (Bathing the Buddha) Please stand and participate with Sunim. At this moment, please join in prayer along with the chant "Sukgamonibul". When prayer reaches the Little Buddha the bathing will take place.

보현행원 Hymn Everyone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Aspiration) Chairperson Pong Soon Moon

경전 봉독 (부처님 찬탄 경문) (Chanting the Sutra for Buddha) Jung Ah Kim

축 사 (Congratulations) STL KAA Pres. Gae-Song Lee

입 정 (Sitting Meditation) Everyone

설 법 (Dharma Talk) Bhikkhuni Sungak Sunim

축하공연 (Celebration) Mark, Aidan, & Ryan Miller

사홍서원 (The Four Vows) Everyone

Last page in Daily Chants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상서광명은 햇살로 부어지고 자비의 구름이 온 국토를 감싸 하늘과 땅이 환희와 감사로 충만한 이 아침, 시이 사바세계 St. Louis Buddhanara Temple 불자들과 Buddhanara Temple 창건 유공자들이 온 세계와 더불어 경건히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심 기울여 부처님 오신 날에 감사와 감격과 환희를 삼보 전에 드리오며 저희들의 서원을 담아 발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어두운 밤중에 태양의 햇불을 드시고 끝모를 어둠덮인 중생 황야에 오셨습니다. 무량겁 전에 오시고 2556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늘 오셨습니다. 중생있는 곳 어떤 곳 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오셨습니다.

특히, 미혹과 고난과 좌절에서 몸부림치는 중생 곁에 오셨으며, 미혹으로 방황하며 야망과 오만과 탐욕과 진심으로 대립 갈등하는 혼란 속에 오셨습니다. 중생 생명의 신성과 청

정자성의 무한 공덕과 온 중생의 진실과 행복을 영원히 지키시고저 등불로서 오셨습니다. 길없고 방황할 때 지혜의 눈과 충만 공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롭고 그늘진 삶의 의지를 잃은 중생에게 용기와 힘과 태양의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진실로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을 구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청정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 불자들은 머리 조아리며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대자대비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성인 가운데 다시 성인이시며 하늘 가운데 다시 하늘이십니다. 일체 세간의 아버지이시며 이 삼계는 부처님의 국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생들은 부처님만이 능히 완전히 구호하십니다.

대자대비 세존이시여!

오늘 찬란한 은혜의 햇살이 폭포처럼 부어지는 이 아침,
거듭 세계 평화위해 대자비 광명 드리오소서.

세계 각계 각층 영도자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시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큰 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계
를 평화롭게 이루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계 속에 반석 같은
평화번영을 이루며 무궁한 세계 평화를 키워가게 하소서. 외
롭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고난에 지친 형제와 풍요와 평화
를 가꾸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행복을 주옵소서.

자유의 태양을 가리운 채 신음하고 있는 전세계의 가족들
에게도 특별하신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중생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 불자에게 사명의 자각과 그 완수를 위하여 헌신케
하시며 그를 위하여 보다 뜨거운 자비와 용기와 정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정법을 심으며 미국 중부지역
포교를 담당할 Buddhanara Temple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바라옵은 오늘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에 동참한 모든 불자와 그 가족에게 각별하신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사 반야광명이 크게 드러나 이들이 지은바 모든 죄상 일시에 소멸되옵고 심신은 강건하고 지혜와 자비는 빛나오며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날날이 모두 이루어지이다.

대자대비 세존이시여!

거듭 간절한 원을 드리오니

자유를 지키다 이 땅을 하직한 순국선열 충의열사 여러 영가들과 오늘의 봉축법요에 동참한 모든 불자의 선망부모와 일문친족 내지 인연있는 여러 영가들이 불국토의 무량공덕을 누리게 하소서.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니불

경 전 봉 독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취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길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딛으셨네.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희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우레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래(如來)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 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늪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네.

-부처님 경전 중 붓다차리타-